

文 “북미·남북대화 새 돌파구 마련 노력”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해 긴밀협력” “성공적 도쿄올림픽에 협력...한일관계 개선 기회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

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균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 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럽

이용빈 “국민적 신뢰받는 공수처 기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내 공정과 정의로운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가 어렵게 출범한 만큼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도 높다”며 “70년 가까이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공수처 구성원 모두가 투철한 소명의식과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



감이 충만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자칫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검찰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와 시간 끌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야당은 검사 추천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공수처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성역없는 수사 정치적 중립 실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관식에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주미대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 이낙연 13% 윤석열 10%

4개 기관 합동조사...문 대통령 긍정평가 상승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

가 가장 적합한다’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 대표는 13%, 윤 총장은 10%로 뒤를 이었다.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3%포인트 올랐으나 이 대표(2%p)와 윤 총장(6%p)은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8%로 3%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전과 같은 35%, 국민의힘이 2%포인트 떨어진 21%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재갑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법안 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 완도진도)은 21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격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물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



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이재명 이어 정세균도 기재부 때리기

여권 대권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정 총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은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기재부에 지시했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개혁 과제의 중요성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차관 발언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의 질책인 동시에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당·정·청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도 기재부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재부를 향해 더 날 선 비판을 해왔다. 특히 흉남기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총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흥 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송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 고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광역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절반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돈 버는 자리 돈 되는 투자
광산 엘리체레이크시티

문화예술 복합단지 42만평 도시개발(택지지구)확정
일반분양 84㎡ 610세대
광주의 마지막 2억7천만원대!!!

프리미엄 웰테크 하우스
광산 엘리체레이크시티 계약자 황금열쇠 증정!

062) 380 - 2984

시흥 유한회사 에스케이공업 시공 (주)서진건설 84㎡A·84㎡B 총610실

주인이 직접 만드는 암병순대
고밥 국밥
수제 돈까스 전문점

고밥국밥 위치

모든메뉴 포장가능!
062-521-3303 광주북구 자동차로 67 (자동차의 거리)
월~토요일 11:00-22:00

식사를 하시면 원두커피 1500원